

보도시점 2024. 10. 4.(금) 16:30 배포 2024. 10. 4.(금) 15:30

세계 물류 중심 도약의 핵심인 부산 신항, 가덕도 신공항 현장 방문

- 부산항 신항 추진 현황 및 7부두 운영 현황과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
-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적기 개항 추진을 당부

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.4일(금), 국내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환적 거점 항만인 부산항을 방문하여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항만 물류 관계자를 격려하고, 신항 추진현황 및 금년 4월 개장한 7부두* 운영 현황과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했다.

*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로서 국산 자동화 장비를 활용하여 화물 이송 전 과정에서 자동 및 원격운전 방식으로 하역 장비를 가동하는 지능형(스마트) 항만

국내 최초 지능형 항만인 7부두를 둘러본 김윤상 차관은 우리 항만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능형 항만 구축 및 항만 장비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*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하고, 부산항이 세계 물류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항 배후단지 내 지능형 공동물류센터 발주('24.하), 진해 신항 공사 착공('24.하) 등 예정된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.

* 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4.1.), 광양항 항만자동화 성능 시험장(테스트베드) 구축('22~'29) 등

이어 인근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대상지를 살펴본 김윤상 차관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남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부산·진해 신항과 연계한 세계 물류 중심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, 신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,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*할 계획임을 밝혔다.

* 지원예산: ('24년) 약 5,363억원 → ('25년^{정부안}) 약 9,640억원

정부는 앞으로도 내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산업·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경청하고 투자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	재정정책국	책임자	과 장	이한철 (044-215-5480)
		재정정책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이성한 (leesh187@korea.kr)

